

박물관 사랑들

2008년 겨울 24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聖穴寺 나한전은 조선 명조8년(1553) 창건되었는데 안에는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과 그 좌우에 나한상을 봉안했다. 16나한상의 옷이 다채롭게 채색되어 화려하고 친근감을 준다.

박물관사람들 Contents

- 기획 04 나한
- 08 창령사 출토 나한상
- 10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
- 14 여수 興國寺 十六羅漢圖
- 우리문화사랑 16 일탈의 아름다움
- 전시실 산책 I 18 고고관에서 키운 나만의 엉뚱한 상상
- 회원마당 21 다시만난 아버지의 손길
- 답사기 23 인간적인 불상의 미소
- 전시실 산책 II 24 덕수궁에서 만난 라틴아메리카
- 학술상 27 보존과 복원의 세계 - 토기·자기
- 박물관 강좌안내 32 2009년도 박물관 특설강좌
- 박물관 둘러보기 34 설경 속의 석탑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5 국립중앙박물관회





五百羅漢圖, 일본 知恩院 소장

나한

불보살이 모셔진 주불전은 웬지 모를 신성함에 웃기를 여미게 한다. 하지만 羅漢殿에 들어서면 조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사르르 풀어지며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 마음의 경계를 풀어지게 할 만큼 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릎까지 드리운 긴 눈썹, 불룩 나온 배, 벌어진 앞나, 한쪽 끝이 살짝 올라간 입술 등 생김새부터 여느 불상과는 다르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염불에 열중한 모습도 있으나 앙상한 수도자의 몸으로 얼굴은 헤벌쭙 웃고 있기도 하다. 새초롬하게 고개를 돌리고 다 소곳이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거나 혹은 사자나 호랑이를 무릎에 얹히고 마치 강아지처럼 쓰다듬고 있는 등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마을 어귀나 시골장터에서 한번쯤은 마주쳤을 대중적 모습으로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분들, 바로 나한이다.

나한이란 梵語 'Arthat'과 'Arhan'을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阿羅漢'의 줄인 말이다. 나한은 마땅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하여 應供,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어리석음·질투와 같은 나쁜 생각을 모두 떨쳐 버렸다하여 殺賊이라고도 한다. 또한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 더이상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하여 不生, 더이상 배울 것이 없어 無學으로 불린다.

나한은 생사윤회를 초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매우 덕이 높은 성자로 추앙받았다. 석존의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스스로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성자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는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인 聲聞四果의 아라한과에 이른 자를 가리킨다. 불교가 발달하면서 나한의 의미도 변화했다. 불교가 일어난 초기에 아라한은 모든 종교의 수행자 중 최고의 단계였다. 따라서 부처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했다. 그 뒤로 부처와 아라한이 구별되어 부처의 제자가 도달하는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한다.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나한은 소승의 聖者로 격하된다. 利他를 강조하는 보살에 비해 자신의 해탈을 추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석조 나한상, 영천 은해사 거조암

『彌勒下生經』에 따르면 부처가 열반에 들 때 곁에 있었던 대가섭, 군저발탄, 빈두루, 나운 비구가 4명의 아라한이다. 나한의 수효도 점차 16나한, 18나한, 500나한 등으로 늘어났다. 대승불교가 융성하면서 4대 아라한에서 16아라한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유행했던 18나한은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00나한은 부처 열반 후 그의 말씀을 정리한 제1차 결집에 모인 500명의 제자들을, 혹은 『법화경』 「五百弟子授記品」에 나오는 500명의 제자들이라고도 한다.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에 따르면 16인의 나한은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며 각지에서 佛法을 수호하고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처의 명을 받게 된다. 16나한 모두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 三界의 五濁에

물들지 않고, 經·律·論은 물론 外典에도 능통해 중생들을 위해서는 참된 福田이었다. 나한들은 날아다니거나 불을 내며,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몸을 변화시키며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神通력을 지녔다고 한다. 보살과 달리 대부분 실존인물인 나한들은 보살들의 역할을 하면서 집단적 숭배를 받았고,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나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송광사 나한전, 전라북도 완주군

— 우리나라 문헌에 나한이 처음 언급된 것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이다. 수로왕이 도읍 터를 잡기 위해 신답평을 돌아보며 그곳이 16나한과 7聖이 살만한 땅이라고 한 기록이 나온다. 그밖에 신문왕의 아들 보천과 효명이 석가여래와 오백나한을 예배하고 나한당을 지어 이들을 모셨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불교를 국교화했던 고려시대에 이르러 나한신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 6년(923년) 尹實이 後梁에 사신으로 갔다가 오백나한 畫像을 가져와 해주 송산사에 봉안했다고 한다. 고려 왕실에서 五百羅漢齋를 비롯한 나한법회를 자주 열어 질병을 퇴치하고 가뭄에 비를 오게 해 달라고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많다.

—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정책을 국가근본으로 삼았으나, 나한신앙은 그대로 전승되었다. 하지만 고려의 나한신앙이 國泰民安을 위함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개인의 안녕을 비는 求福信仰이었다. 나한제도 진혼의식으로 치러졌다. 나한의神通력을 빌어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과 명복을 빌거나, 장수와 복된 삶을 기원하는 복전의 성자로서 섬겨졌다. 고려 때 나한전이 정전으로 존재할 만큼 융성한 것에 비해, 임진왜란 후 소실된 사찰 재건시 나한전은 주로 주불전의 뒤쪽에 위치하며 명맥을 유지했다. 나한신앙의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사찰에서 부처와 더불어 나한상이나 나한도가 봉안되었다. 불단도 크게 장식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다. 완주군 송광사의 오백나한전, 영천시 은혜사의 거조암, 울진군 불영사의 응진전 등이 나한도량으로 유명하다.

이성계는 왕이 되기 위해 백일기도를 마친 뒤 꿈을 꾸었고, 무학대사가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스님이 머물던 토굴에 釋王寺라는 절을 지었다. 그런데 스님은 해몽을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廢寺가 되어 비바람을 맞고 있는 해주 신흥사의 오백나한을 함경도 안변 석왕사까지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단, 오백나한을 한분씩 정성껏 업어 옮겨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성계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마지막 남은 두 분의 나한을 한꺼번에 업어 옮기는 꾀를 부렸다. 그날 꿈에 오백 번째 나한이 나타나 불만스럽게 "왜 나만 차별대우하느냐? 나는 금강산 유점사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꿈에서 깨어 가보니 마지막 나한의 자리가 비었다. 유점사로 달려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마지막 나한을 다시 등에 업어 모셔왔으나 꿈에 나타난 나한은 "다시는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지 말아라."하며 화를 냈다. 그래서 석왕사에는 오백 번째 나한의 자리는 비어 있고 명패에 이름만 써두었다고 한다.

— 나한과 관련된 구전설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주로 나한전 조성에 대한 유래담과 나한이神通력을 발휘해 절이나 승려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나한의 영험함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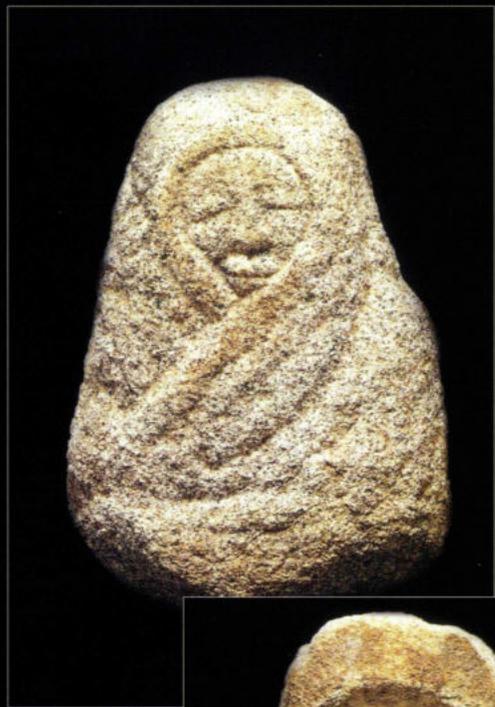
— 태조 이성계가 나한신앙의 은덕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설화이다. 그밖에도 양수리 수종사, 강화 보문사, 선운사 도솔암, 군산 상주사 등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다. 나한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재미있는 설화도 많다. 동지 때 불씨가 꺼져 팔죽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나한이 동자로 현신해 한밤 중 마을로 내려와 불씨를 구해주는 일이나, 큰 괴목으로 법당이 위험하게 되자 해결해 주는 내용 등이 있다. 다양한 구전설화들은 민간에 전해져 나한신앙을 왕실에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전파시켰다. 이야기 속의 나한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친근하게 서민에게 다가섰고, 이것이 바로 나한의 친화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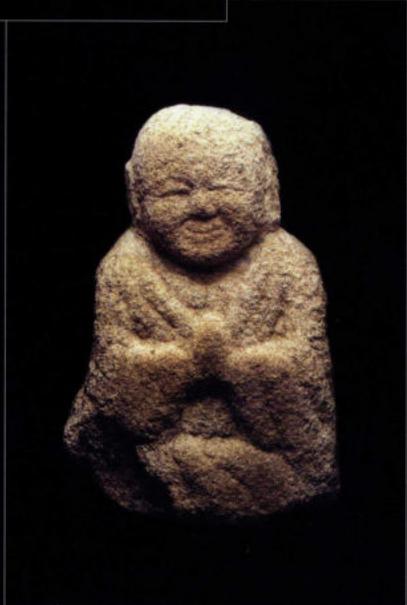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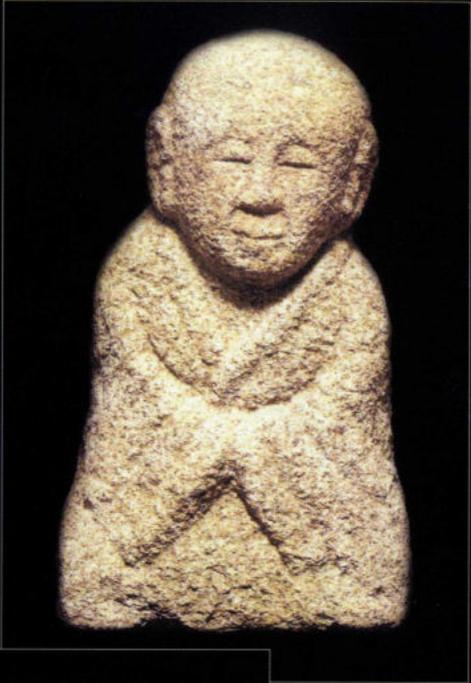
— 번뇌를 끊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나한.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음일까.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진정한 고수란 고수의 개념을 뛰어넘어 그 한계를 벗어나듯, 나한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俗界에 들어왔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진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힘들고 복잡한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나한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을지.

목조 나한상, 동국대박물관 소장



석조나한상
강원 영월 창령사터 출토
국립춘천박물관





한글서체로 된 수직 문구



깨달음이면 모두가 부처

오백나한도 제125 진보장존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년 고도 경주의 동쪽, 병풍같이 솟은 토함산에 부처님이 제자를 이끌고 홀연히 내려 오셨다.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10대 제자들의 이국적인 모습이 눈에 뜨인다. 불법을 전파하고 중생을 구원하고자, 먼 길을 마다않고 부처님을 좇아 동방의 작은 나라에 안착했다. 높은 공덕의 高僧인 나한들은 언제부터인가 중생들 옆에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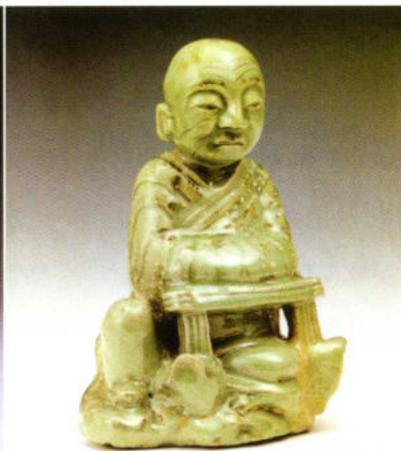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칸으로 구분 되었고 각 칸마다, 菩薩, 羅漢의 立像을 병풍처럼 새기었는데 그 모두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긋고 능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

—玄鎮健「佛國寺 紀行」

— **덕** 높은 스님에 대한 숭배심은 통일신라를 지나 고려에 이르러 크게 성행하며 나한에 대한 신앙심도 깊어졌다. 원효가 입멸하자 설총이 그 뼈를 진흙에 섞어 초상을 만들어 공양했다고 삼국유사에 전하듯, 스님들에게 음식공양을 올리는 飯僧儀式이 국가적인 행사로 행해진다. 神光寺 五百羅漢圖(1235~1236)는 현재 남아있는 나한도 중 가장 시기가 이르다. 13점 중 5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고승의 모습을 비단 바탕에 수묵 담채의 사실적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삭발한 머리에 가사 장삼을 걸치고 禪定의 자세로 앉아 선문답을 하거나 주변의 경관을 인자한 웃음을 머금고 바라보기도 한다. 마치 스님의 고즈넉한 수행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화면 곳곳에 용을 불러들이거나 정병에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는 나한들의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다. 일년 동안 여러 명에 의해 제작되어 다양한 변화가 느껴지나, 국가 환란의 시기에 500폭을 조성한 커다란 佛事로 그 절실했던 마음이 짐작 된다. 五百羅漢圖(知恩院所藏 일본)는 한 폭의 공간 가득 나한을 그린 유일한 석가삼존오백나한도이다.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석가삼존 주위를 신장과 십육나한이 지키고 수많은 나한들이 둘러싸고 있다. 2cm 내외인 나한의 얼굴 표정을 제각기 개성 있게 가늘고 탄력 있는 먹선으로 묘사한 뛰어난 작품이다.



塑造羅漢像, 동국대박물관 소장



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국보 173호)

— 塑造羅漢像에서도 나한의 면모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짙은 눈썹과 부리부리한 코, 굳은 의지의 입술,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랜 수행에서 나오는 단호함과 엄격함이 배어있다. 이제까지의 나한들이 성자의 모습이었다면 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 [국보 173호]은 훨씬 인간적이다. 중생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깊은 상념에 잠긴듯하다. 부처님은 어렵고 멀리 있어서 마음 놓고 다가서기기 두렵지만 나한은 손을 내밀면 어디서든 잡아주는 구원자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경건함이나 엄숙함보다 소박하고 고뇌하는 인간이어서 더 정겨움이 느껴진다.

조선 전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남양주 홍국사의 십육나한상은 고려의 맥을 잇는 사실적이고 고식적인 모습이다. 제1 존자인 빈도라발라타사존자(賓度羅跋羅憍尊者)는 가사를 머리 위부터 온 몸으로 감싸고 합장하고 있다. 의복을 정제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결가부좌를 하고 坐禪이라는 行을 통하여 종교적 진리를 실현한다. 그러나 그 표정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이다. 또렷한 눈매는 쳐져 있고 빨간 입술 속에 보이는 하얀 이는 천진스런 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하다. 신통력이 뛰어나 王舍城의 속인들 앞에서 공중으로 몸을 날려 높은 깃대 위에 매달려 있는 檀香木의 鉢盂를 잡아 부처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다 하니 그 장난기는 숨길수가 없나보다. 흰 머리카락과 얼굴까지 내려오는 긴 눈썹이 산신령을 연상시켰는지, 우리나라에서 빈도라존자의 신앙이 크게 성행하였다. 대부분의 사찰 三聖閣에 많이 봉안 되어 있다. 제10 반탁가존자(半託迦尊者)의 표정도 예사롭지 않다. 조신한 아낙네처럼 무릎을 세워서 손으로 잡고 옆으로 돌린 얼굴은 새초롬하다. 화려한 가사와 길게 올라간 눈, 얇은 입술은 갓 시집온 새색시가 마실 온 것 같으나 부처님처럼 큰 귀, 높은 법력을 나타내는 머리위의 붉은 표식, 옷 사이에 살짝 드러나는 검정 고무신이 재미있는 반전이다.

영월 창녕사터 출토 석조나한상에서는 화강암 특유의 둥글고 부드러우며 풍부한 양감의 조형적 특징을 보이고 뒷면은 간략화 하였다. 머리에 두건을 쓴 被帽나한상을 비롯하여 가사를 쓴 상, 민머리 승려 등 여러 유형을 보여준다. 반달 같은 실눈으로 웃고 있으며 통통한 볼과 동그란 얼굴은 동자상처럼 해맑다. 가사를 쓴 나한은 할머니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성모마리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부처와 중생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믿음의 매개체인 나한과 천주교의 성모는 같은 맥락으로 통할 것 같다. 종교를 초월하는 숭고한 존재인 것이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나한의 수줍은 미소가 더욱 마음을 잡아끈다. 무엇이 저리 부끄러울까. 다들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번뇌와 집착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불호령 대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른다.

미혹하면 산하가 경계지만 (迷則山河爲所境)

깨달으면 티끌마다 모두가 부처라네 (悟來塵塵是前身)

—懶翁 慧勤



십육나한상. 경기 남양주 홍국사



塑造羅漢像, 동국대 박물관 소장



— 금강산 호랑이도 나한들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 같다. 松下猛虎圖[도·1]에서 百獸의 제왕은 화면을 박차고 나와 당장 덤벼들 것만 같다. 그러나 꼬리를 잡히고 몸은 한없이 작아져 자기의 긴 꼬리만 바라보는 신세이다. 가낙가발리타존자(迦諾迦跋釭墮尊者)의 입가에 살짝 비웃음이 떠오른다. ‘그래봤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도·2] 한 마리는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보이려고 애를 쓰나[도·3] 결국 포기한 채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어리광을 부린다.[도·4] 호랑이가 우리 조상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단군신화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다. 이런 모습에 塑造羅漢像은 파안대소 한다. 자기의 신통력에 길들여진 호랑이가 마냥 재미있나 보다. 뛰어난 해학과 재치있는 표현에 보기만 해도 즐겁다.

— 조선 후기로 오면 나한은 내면의 세계를 강조한 전 시대와는 다르게 민화적이고 자유분방하다. 화려하면서 다소 세속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靑綠山水의 원색적인 표현과 도교의 영향으로 십장생의 상징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오히려 인간의 꿈이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진다.

— 단조로운 삶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려도 사람들은 늘 꿈을 꾸며 더 나은 세계를 바란다. 지금도 나한들은 그 소원을 듣고 우리들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릴것만 같다.



김홍도의 松下猛虎圖 [도·1]



[도·2]



[도·3]



[도·4]

여수 興國寺 十六羅漢圖

남도의 끝자락, 여수의 흥국사에는 1723년에 그려진 십육나한도[보물1333호]가 한 점 전해 오고 있다. 이 작품은 사찰 내 나한들을 모시는 전각인 응진당에 봉안되어 있던 것으로 당시 최고의 불화승인 의겸스님에 의해 그려졌다. 그림이 봉안되어 있는 여수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義僧水軍의 본거지였으며, 전란 후에도 僧軍의 鎮駐寺 역할을 했을 정도로 승병들의 활동이 왕성하던 사찰이다. 이 곳에서 雍正元年인 1723년에 흥국사에 거주하던 승려들 대다수의 발원으로 여러 점의 불화가 제작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십육나한도>이다.

이 작품은 삼베 바탕에 총 6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

1, 2폭에는 십육나한 외에도 부처님의 대표적 제자인 가섭과 아난이 함께 그려져 있다. 한두 폭이 아닌 총 여섯 폭에 그려진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봉안된 응진당이 정면 3칸, 측면 2칸이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붉은색, 녹색, 군청색을 중심으로 나한을 표현하였고 배경 산수에 수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나한들은 합장을 한 채 앉아 있거나 나무에 기댄 채 서 있다.

입을 딱 다문 채 엄숙한 표정을 한 존자가 있는가 하면 살짝 미소를 지은 채 인자한 모습을 한 존자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 중 몇몇 존자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제 5존자는 여의로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 중 제4폭 : 14, 12, 10, 8 존자



용을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降龍'장면은 나한도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주제로 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을 불러 가뭄을 해결하고자 했던 나한들의 위력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암굴이 연상되는 곳에서 머리에까지 가사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표현된 나한은 마치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아마도 선 수행을 주로 하는 존자를 표현한 듯하다. 그 밖에도 여의로 등을 굽는 나한, 귀를 후비는 나한 등에서 중생들과 친숙한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표현된 나한들의 모습은 중국의 明代에 간행된 판본이자 백과사전인 『三才圖會』에 등장하는 나한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주목할 만하다. 『삼재도회』는 17세기경 조선에 유입된 후 많은 회화 작품에 활용되는데, 불화의 경우 여

수 홍국사 십육나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나한들의 모습이 중국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지만, 의견은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한 화면 내에 여러 존자들을 조화롭게 잘 배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수묵의 산수표현에서도 과감한 필력을 선보인다. 또한 나한들의 얼굴 표현에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신통력을 지니고 있는 위력있는 모습, 연륜있는 노비구의 모습, 불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굳건한 강직한 모습 등을 절묘하게 그려 작품의 가치를 빛내주고 있다.

이렇듯 여수 홍국사 십육나한도는 불보살과 중생들의 중간 쯤에 위치하는 듯한 나한들의 성격을 잘 표현하였으며, 한 화면 내에 여러 존자들을 조화롭게 잘 배치한 수작으로 조선후기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제1폭 : 가섭, 1, 3, 5 존자



일탈의 아름다움

- 전통매듭장 조교 김혜순



중요무형문화재 제 22호 매듭장 조교 金惠淳의 첫인상은 후덕해 보인다. 말소리도 조용조용해서 그저 묵묵히 한 우물을 판 장인인가 속단하기 쉽다. 음성을 높여 자신의 정력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단아한 여염집 여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활동 반경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이런 끼가 숨어있었을까 싶다.

“고교시절에 제 자수 작품이 뽑혀서 학교 진열장에 걸리곤 했는데, 그때 재미를 붙인 듯 해요. 대학에서 자수를 전공했고, 매듭은 결혼 후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할까요. 매듭장 기능보유자 김희진이 순위 시누이이고, 명주실이나 염색은 늘 가까이 하던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선뜻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일본 출장길에 책자를 사다주기도 하고 차츰 응원을 아끼지 않았지요.”

매듭 제작은 아주 치밀하고도 정확한 수작업이다. 명주실을 精練해서 고운 색깔로 염색하고 합사해서 다회치기로 우리가 흔히 보는 매듭 끈을 만들어야 한다. 자그마한 회전목마 같은 다회틀에 색실이 감긴 톳을 걸고 이리저리 위치를 바꾸면 단단한 끈목이 완성된다. 용도에 따라 4사, 8사, 12사 등 굵기가 정해지고 드디어 매듭을 맺기 시작한다. 일정한 길이의 끈목을 반으로 접어 중심을 잡고 두 가닥의 끈을 순서대로 엮고 조이면 된다. 결코 녹녹치 않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

“한국 매듭을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엮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이느냐에 따라서 매듭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니 반듯한 작품이 나올 수 없지요. 수를 놓을 때는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매듭은 그야말로 무념 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작품에 몰입하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밤을 꼴딱 새우기 일쑤입니다.”

김혜순은 좋은 스승에게서 꼼꼼하게 전통 매듭을 익혔다. 국내외의 여러 전시회를 통해 그녀의 기량을 뽐냈다. 노리개·선추·각종 주머니 등의 전통 장신구와 실내 장식품을 비롯



해서 현대적인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작품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도 수 향갑 노리개는 돋보인다. 지극히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은은한 파스텔 톤의 비단에 연꽃과 구름무늬 수를 놓았다. 색의 대비가 강렬하지 않아서 더 예쁘다. 봉술의 빛깔과 자태는 또 얼마나 기품 있는지. 어디에 걸어도 조화를 이루며 빛을 발할 듯하다. 그리고 김혜순은 자수와 매듭을 한 평면에 배치하는 모험을 강행한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독창적으로 개척해냈다.

“매듭은 단단하게 엮고 조이기 때문에 규격화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수는 표현이 자유로운 셈이지요. 그래서 둘을 혼합해 보았더니 상호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수는 매듭을 회화적으로 풀어주고, 매듭은 자수에 액센트를 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탐탁찮아하던 선생님도 개인전의 호평을 보고는 매듭이 전통적인 법도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도인 연(蓮) I·II는 모네의 수련을 연상시킨다. 붉은 색실로 수놓은 연꽃은 도드라지고 줄기의 매듭 처리는 이리저리 영긴 연못의 생태를 더 생동감 있게 해준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비천(飛天)은 자수와 매듭으로 풀어낸 추상화이다. 아무 형상 없이 엮어놓은 매듭과 자수는 거침이 없다. 그러나 오래 들여다보면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이 연상된다. 위로 뻗은 매듭은 하늘로 오르는 비천의 옷자락 같고, 범종 소리가 스민 듯한 색은 눈에서 마음으로 퍼져, 보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작품은 온몸과 마음의 합동작업이라고 한다. 여행과 박물관 순례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는 김혜순은 국립중앙박물관 특설강좌 1회 출신이다.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



김현진은 3년째 연구 강좌를 듣고 있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손자에게 한국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한다. 박물관 전시실 산책도 자주 같이하는 편이어서 그녀가 작품을 완성해 두면 남편이 제목을 곧잘 붙여주곤 한다.

그녀는 얼마 전 제2대 한국매듭연구회 회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후진 양성에도 열의가 대단하다. 더 많은 전수자를 배출해서 회원을 확충하고,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난 우리 매듭의 품격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자면 현대 생활에 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보급해야 한다. 다행이 두 며느리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긴 끈 매듭인 流蘇처럼 아름답고 유구한 이들 가족의 사랑이 있어 우리 전통공예의 앞날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고관에서 키운 나만의 엉뚱한 상상

3월에 시작한 박물관 특설강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처음 시작하던 날, 강의만 듣지 말고 틈나는 대로 전시실을 둘러보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여 목요일이면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에서 떨어진 부드럽고 밝은 빛의 복도가 길게 펼쳐지고, 기대에 찬 발자국 소리가 과거로 떠나는 여행의 출발을 알려준다. 물론 대개는 견학 온 초등학생들로 북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설레는 마음까지 방해받는 건 아니다.

고고관 전시실로 들어설 때마다 먼저 한 쪽 벽 가득 그려진 세계 지형도 앞에 발을 멈춘다. 땅과 바다의 높낮이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세계가 한 눈에 들어온다. 순록의 침엽수림지역, 샤머니즘의 고향이라는 바이칼 호수, 스키타이와 흉노가 말달리던 초원과 티베트 고원지대,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가 동진하던 길을 따라 청동기문명이 들어온다. 황하문명보다 먼저 신석기·청동기문화를 꽃피웠던 홍산문화기의 발해 연안 동쪽 어디쯤에는 고조선의 신단수가 있을 것 같다.

구석기시대의 도구들을 살펴다보면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어떤 여성인류학자가 쓴 소설이 떠오른다.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자인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구석기시대의 여인 '야난'의 이야기다. 굶

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지상과업이었던 시대, 유리관 너머의 조용한 무기들은 생사를 가늠하던 도구였다. 아시아에도 발달된 구석기 전기 문물이 있었음을 증명한 양날 찌개, 아슈리안 도끼가 보란 듯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한 쪽에서만 어떤 물건이 발견되고 해서 지구의 다른 편보다 발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풍토가 달라서 다른 도구가 발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다.

비파형 청동검 옆에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날카롭게 갈아놓은 석검도 있다. 당시의 첨단기술을 뽐냈뿐 아니라 예술적 완성미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비파형 동검은 어떻게 저런 곡선을 가지게 되었을까? 적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일까?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4세기경 북쪽에서 유입되어 한국식 동검문화로 정착된다. 검 주위의 곡선과 뾰족한 부분이 매끈해진 것이다. 날카로운 석검과 청동검을 보자면 그것이 겨누고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닌 인류임이 느껴져 섬뜩하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탄생했다고 하니 말이다.





독무덤양식이 강력한 이 지역 권력층의 묘제로 정착되면서 독무덤의 최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청동기시대 한반도의 대표적 무덤형태인 고인돌과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무덤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떤 자료엔 판석의 돌널무덤이 그 위에 뚜껑돌을 덮은 고인돌로, 그리고 다시 뚜껑돌을 제거하고 돌을 쌓은 돌무지무덤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발해 연안 우하량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3500년의 돌무지무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또한 요하 동쪽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2500년의 돌무지무덤들은? 그렇다면 기원전 2000년의 고인돌은 돌무지무덤의 원조가 아닌 동시대 문화였던 것인가?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은 한강 유역 백제의 돌무지무덤으로, 신라의 적석목곽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양식의 저장용기로 시작된 토기가 '인간을 담은 용기'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은 것은 꽤나 오래전 일인 것 같다. 신석기 시대 2차葬으로 밑에 구멍이 뚫린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독무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영산강 유역의 거대한 독무덤은 가히 독보적이다. 곤충의 커다란 고치 같기도 하고 외계인의 캡슐 같기도 한 것이 마치 현세의 삶을 끝내고 재탄생을 준비하는 거처이자 변신을 위한 장소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엉뚱한 상상일까? 영산강 유역의 호남 문화권은 백제 왕조가 발달된 철기문화를 가지고 남하하여 마한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한 3세기후반까지도 고유 문화를 유지했던 곳이라고 한다. 전부터 중국과 우리나라 곳곳에 존재했던

가야와 신라에서 꺼묻거리로 상형토기와 토우가 유행했던 것은 어떤 토대 위에서 가능했을까?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생의 기억들이 마치 거울 속 영상처럼 다음 생애 투사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현세의 삶에 대한 최대한의 긍정이 아닐까? 소박한 형태의 토우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부 부유층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수레, 배, 기마인물 등의 구체적 형태와 제기라는 추상적 기능간의 손쉬운 결합을 보며 그들의 현세 긍정적 상상력에 감탄을 보낸다.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함께 공주, 고창, 경주 등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죽음 뒤의 삶'을 꿈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마도 그래서 박물관의 특별강좌를 듣게 되었고 강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무덤의 부장품들로 이루어진 고고관에 발길이 땀독았던 것 같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무덤에 방을 만들거나 사후에 사용할 물건 따위를 넣지는 않는다. 이제 무덤에서 그를 증명하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알랴. 앞으로 천 년 후 박물관을 지나던 어떤 중년 여성이 천 년 전 지금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다소 어두컴컴한 고고관을 나서면 중앙 복도의 환한 빛에 눈이 부시다.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 너머로 역사관이 보인다. 다음주부터는 그 곳을 배회할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다시 만난 아버지의 손길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둥근 분청호와 눈인사를 한다. 흐릿한 햇살을 받은 분청호는 아이같이 무구한 문양으로 부드러운 마음결을 드러낸다. 번잡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다. 그 속으로 익살스러움이 고요히 누비고 지나고 있다. 키18센티, 입지름 5센티.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온 큰 힘에 나는 다시 작은 호 곁으로 다가간다. 이 분청호가 버텨온 시간들을 가늠해보고자 그 몸피를 만져본다. 거칠지만 따뜻한 느낌이다. 호를 빚은 도공의 숨결이 도자기 세포 하나하나에 짝 들어차 있다. 어두운 듯 부드러운 색의 문양은 마치 빛을 내뿜고 있는 것 같다.

고려 시대의 불교와 조선시대의 유교가 동시에 어우러져 있던 15-16세기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시기의 분청자는 청자와도 다르고 백자와도 다르다. 청자가 화려한 귀족의 색이라면, 청빈한 선비의 정신은 백자에 가깝다. 분청은 순박한 조선 민중의 심성과 한국적 향토색을 진하게 풍기는 민초의 색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규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나보다. 자유분방함이 독특한 조형을 빚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둥근 분청호는 청자의 품위를 간직한 채, 활력이 넘치는 백토분장에서 백자의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형태나 문양에서 섬세함과 정교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대범한 대인의 손놀림이 살아있다. 부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전체의 어우러짐은 독특하다. 뜯어보면 거칠기도 하고 서툴러서 미흡한 것 같지만 모두가 모여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뽑어내는 아름다움이 숨을 멈추게 한다.

—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던 아버지도 이 분청호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다. 아침이면 언제나 분청호를 쓰다듬으며 마음결을 가다듬고, 번잡한 일상의 문을 여셨다. “거칠게 깎아 생기는 힘을 백토 분장으로 한번 부드럽게 죽이고, 귀얄을 이용해 새로운 힘과 질서를 부여한 이 분청호 한번 보아라” 아버지는 늘 말씀 하셨지만 나는 것 등으로 흘리곤 했다. 낙엽 소리에 유난히 몸을 뒤척이는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속삭임이 마음으로 들린다.

— 팍팍한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목마르게 한다는 걸 아버지는 미리 아셨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분신 같은 이 분청동근호를 내게 주셨다. 나는 다시 분청 동근 호를 쳐다본다. 귀얄의 거친 운동 자국은 천연스런 느낌이 든다. 너무 단순해서 아이들 낙서 같은 붓놀림은 시공을 뛰어넘어 현대 추상 회화의 맛도 난다. 분청호에 나는 아버지 같은 경의를 표하고 싶어진다. 눈을 감고 호의 몸피를 조심조심 어루만져 본다. 아버지의 숨결이, 손길이 내 심장에 전해진다. 갈증으로 목마른 날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나도 이 분청호를 만지작거리며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 본다.

— 나와 분청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흐르는 시간 뒤에 추억이 뒤따라온다. 목은 그리움이 나를 흔들면 저문 세상의 길이 보인다. 바람이 쓸고 간 자리만큼 허기진 아버지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이 동근 분청호는 묵묵히 받아내고 있다. 아버지는 겨울 까치를 위해 찬 서리 내린 나무 끝에 흥시 하나쯤 남겨둘 줄 아는 분이셨다. 그래. 그 넉넉함으로 아침이면 내 마음 발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내 안에서 호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 한 시대의 큰 흐름을 담당했을 분청호는 오늘 내 앞에 세인의 시선에서 멀어진 허기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사람들 사이에 놓인 섬이 또렷이 보이는 날, 분청호는 내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네 속에 깃들여 위로 받고 싶다.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인간적인 불상의 미소

여행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답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서산을 찾는 날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거리더니 급기야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 한번 준비된 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강행한다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은 비가 오더라도 답사여행지에서는 개였으면 하고 바랬다. 그러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하루종일 비가 엄청 퍼부었다. 쏟아지는 폭우에 다들 선뜻 가볼 생각을 못하였으나 안가면 후회할거라는 친구의 말에 우산을 들고 다시 나섰다. 정말로 후회할 뻔 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상과의 첫 만남이었다. 아직도 그때 신선한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예전에는 암벽 위에 보호각이 설치되었으나 지난해 12월 보수공사로 철거된 이후 자연 상태의 삼존불을 제대로 감상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돌은 인간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소재이며,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신성하게 여겼다. 선사시대에는 고인들을 세웠고, 신단을 쌓아 복을 빌기도 했다. 커다란 바위에는 그림과 부호를 새겨 넣어 특별한 장소로 삼았고, 특히 철기를 다루면서 돌을 다듬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다. 불교가 들어온 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내구성이 강한 화강암의 바위면에 불상을 얹게 새기는 독특한 불상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의 절벽에 위치한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은 석가여래입상(높이 2.8m)과 좌우로 제화갈라보살입상(높이 1.7m), 미륵반가사유상(높이 1.66m)이 조각되어 있다. 계곡을 따라 한걸음씩 옮길 때마다 이런 경사진 절벽에 백제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마애불을 조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곳은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길목으로 당시 활발하게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었다. 서산마애불은 교역로의 안녕과 백제의 평안을 비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드디어 울긋불긋한 우산의 행렬 사이로 서산마애삼존불의 본존인 여래입상이 보였다. 흔히 생각했던 불상이 아니었다. 너무나 인간적인 얼굴에 천진하게 웃고 있어 '백제의 미소'라 했나보다. 보고만 있어도 같이 살짝 웃게 만든다. 그 여유로운 미소는 당시 백제가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리라. 중국 北齊의 불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이러한 얼굴모습은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U자형으로 드리워진 대의는 양 팔목을 감싸고 길쭉한 몸매를 따라 가지런히 늘어져 있다. 대의 안에 웃고름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삼존불 모두 군의 밖으로 양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다. 맨발을 보니 어쩐지 정겹다.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

본존 양 옆에 보살상의 자세도 주목할 만하다. 상이한 자세의 보살상을 배치한 삼존불은 이곳 밖에 없다고 한다. 백제에서는 미륵신앙이 유행하여 한 편에 반가사유상을 제작한 듯하다. 보살입상의 꽃장식이 새겨진 높은 보관은 중국 수나라 양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1965년부터 43년간 풍화방지를 위해 가렸던 보호각이 철거되면서 마애삼존불상은 관람객의 접근과 산성비에 노출되어 훼손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우리 모두는 '국보 1호 승례문 방화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문화재청은 손상으로부터 마애불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먼저 술선수범해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비에 온 몸이 젖어 계곡을 오를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보고 내려오는 발길은 오히려 가벼웠다. 인간적인 불상의 미소에 반하였고, 자연과 어우러진 거대한 불상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제는 몽촌토성의 목책을 보아도 그저 나무울타리라고만 여기지 않는 눈도 열리니 점차 우리의 유물과 유적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가끔 '백제의 미소'를 떠올리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덕수궁에서 만난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우리 땅에서 가장 먼 대륙,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을 지나 계속 나아가면 닿을 수 있다는 곳. 그 거리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그림들을 서울 한복판 하고도 덕수궁에서 만날 수 있었다. 더구나 대륙의 대표적 작가 84명의 작품 12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참으로 드문 기회이다.

덕수궁은 갈 때마다 여러 상념이 교차하는 궁궐이다. 도심 한복판에 이나마 숨 쉴 공간이 있으니 고맙다는 생각 한편으로는, 기울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려고 이 궁궐을 짓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던 시절의 여러 흔적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표소 앞에 있는 덕수궁 지도에 원래 경운궁으로 불렸던 궁궐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전이 이런 역사를 간직한 덕수궁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시공간을 떠나 비슷한 운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시는 '세계의 변혁을 꿈꾸다-벽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는데, 맨 처음 그림이 아틀 박사의 <별밤의 화산>이었다. 화가이자 혁명가로서 벽화운동의 이론적 틀을 세운 그의 이름 아틀은 아스텍식 이름으로 '물'이라는 뜻이다. 이름에서부터 스페인의 유산을 배경하고 자신의 선조인 멕시코 인디언들과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는 풍경화 중에서도 화산 그림을 즐겨 그렸는데, 한가운데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화산의 주위로 흘러내리는 용암이 자리한다. 멀리는 산들이 펼쳐지고 하늘엔 별이 가득하다. 둥근 지평선에 닿도록 촘촘히 뜬 별들이 사하라 사막에서 야영하며 바라본 황홀한 밤하늘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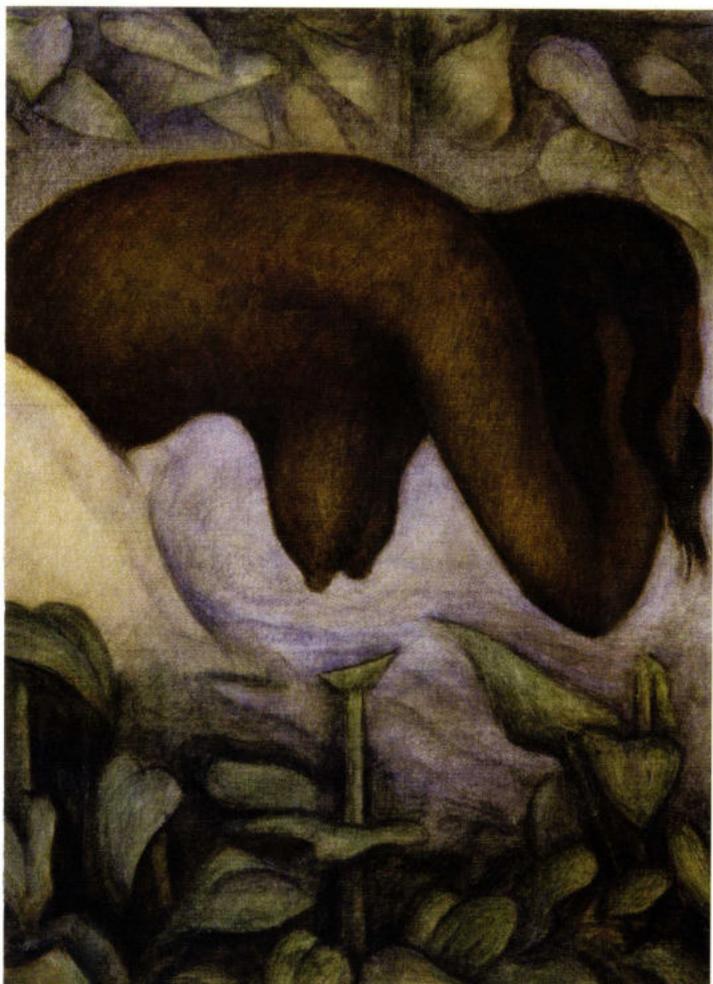
— 이어지는 그림들은, 멕시코 벽화운동의 3대가라 불리는 디에고 리베라,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의 그림들이다. 세 사람 가운데 그래도 친숙한 리베라의 그림 중에서는 <종교의 역사> 연작 두 점이 눈에 들어온다. 전체 다섯 점 가운데 기독교와 아스텍의 종교를 그린 두 작품인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이 두 종교란 자신들의 역사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 문명에 의한 아스텍 문명의 정복으로 시작된 식민지의 역사는 무려 300여 년간이나 이어지다가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양한 인종 간의 갈등과 심각한 빈부 격차, 정치적 불안정 역시 식민 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들이다.

— 새벽인지 저녁 무렵인지 어스름한 빛 아래 윗옷을 벗은 여인이 고개를 수그리고 풍만한 젖가슴을 늘어뜨린 채 머리를 감고 있다. 피부색과 머리색은 비옥한 대지처럼 검고, 땅거미처럼 어둡다. 배경은 풍요로운 대지에서 자라는 무성한 열대식물의 푸른 잎으로 가득 차 있다.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색조, 이 여인이 바로 '테완테펙의 목욕하는 사람'이다.

— 스페인과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멕시코로 돌아온 디에고는 1922년 멕시코 남부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에서 그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준 곳이 바로 전통이 잘 남아 있는 도시 테완테펙이었다. 이후 디에고는 멕시코의 전통을 자신의 그림에서 중요한 주제로 삼게 된다.

— 디에고 리베라 하면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두 사람의 삶은 다양한 책과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들이 21살의 나이 차를 넘어 결혼을 할 때 프리다의 부모는 이 결혼을 '코끼리와 비둘기'의 만남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프리다의 결혼 생활은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평탄치 않았다. 디에고의 잦은 외도와 아이의 유산,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두 사람은 파리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와 이혼을 한다. 그러나 프리다는 디에고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별한 지 1년도 못 되어 재결합을 한다. 디에고는 여전히 불성실한 남편이었고, 이후에도 프리다는 그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는다. 프리다가 겪는 고통 때문에 나도 마음 아팠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던 건 프리다 역시 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뜨거운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술가의 열정인지, 아니면 라틴적 감수성인지는 모르겠지만…….

—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누구인가-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정체성'이었다. 우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영화를 보면





서, 또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소식을 접하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힘겹고 점점이 쌓인 문제가 많은데도 누구보다도 생을 즐기는 그들의 환한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한다.

— 에밀리아노 디 카발칸티의 <카니발>은 열정과 환희의 도가니, 카니발의 장면을 소재로 한 것이다. 카니발 하면 떠오르는 삼바 리듬과 거기에 맞춘 춤은 본래 아프리카의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유럽의 식민 모국들은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사탕수수, 목화, 커피, 바나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의 노예로 충당한다. 이들의 전통 리듬과 춤이 카니발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으며, 그래서 인지 축제의 장면인데도 어쩐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그런 미묘한 감정은 요르위 모렐의 <민속음악 바치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세 사람의 악사와 흥겹게 춤을 추는 마을 사람들을 그린 그림에서도 어쩐지 비애가 느껴졌다.

— 또 한 사람의 인상적인 화가는 콜롬비아의 페르난도 보테로이다. 한 번 보면 결코 잊지 못할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보테로의 뚱뚱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전시된 <시인>과 <브래지어 차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인물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권력자나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을 풍자한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뭐라 해석하든 그의 그림을 보면 왠지 긴장이 풀어지면서 웃음이 실실 나온다고 하면 오버일까?

— 두어 시간 라틴아메리카의 향기에 취했다가 나오는 길, 석조전 계단에서는 중화전의 행한 마당이 바라보인다.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계단의 담도에 용까지 새기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마저 세웠건만, 무너져가는 기둥뿌리를 감출 수 없었던 나라, 대한제국. 백 년 전 그 나라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을 시리게 만든다.



보존과 복원의 세계 - 토기·자기

I. 책의 전개와 구성

이 책의 성격은 보존과학팀 내 토기·자기 보존처리실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해 온 도자기 보존처리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갈음하는 것으로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대상으로 보존과정 전반을 소개한다. 여기에 덧붙여 전문분야 사람들을 위한 전개방식과 구성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책 전개방식의 특징

첫 째

도자사, 도자공학, 미술재료학, 화학, 도자 재료학, 요업, 색채학, 문화재 분석학 등 예술과 기술, 과학에 두루 걸친 관련된 지식을 보존과학의 입장에 맞도록 정리하였다.

둘 째

유물 처리가 행해지는 실제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론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정리하였는데 이런 실제들은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복원에 대한 상세하고 현실적인 그림과 도판을 풍부하게 실었으며 주의할 점이나 참고할 점은 『Notes』를 두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전체 내용의 구성

첫 째

복원전 처리 (처리전 조사와 실측, 이물질 제거, 탈염·강화·세척)

둘 째

복원 (접합 및 결실형태 복원, 표면색과 질감 복원, 유약층 복원)

셋 째

연구 및 분석 (주성분 분석, 미세구조 분석)

‘복원기술’ 위주로 언급하고 ‘연구 및 분석’ 부분은 대략적인 소개와 예시로 끝을 맺으므로 향후 여러 연구논문 등으로 보충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림1. 청자상감시명주자의 X-선 촬영
결손된 손잡이를 복원할 때 철사를 사용하여 만든 골격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철사 끝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접합면에 뚫은
구멍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림2. 백탁유화분의 패각
바다 속에서 인양된 유물에는 패각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EDTA-4na 용액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그림3. 각종접착제
도자기 보존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주로 셀룰로오스계, 아크릴계,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에폭시계 등을 사용한다.

II. 보존처리 및 연구 과정

도자기 유물의 보존과정은 <1.처리전 예비조사→2.탈염, 세척, 강화, 이물질 제거→3.접합→4.복원→5.색맞춤→6.유약층 복원>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 및 조사가 동시에 행해진다.

1. 처리전 예비조사 - 실측, 현미경 관찰, X-선 촬영, 주사전자 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보존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간파하고 처리 방침을 세우는 과정이다. 무엇에 유의해야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처리가 될 것인지 숙고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연구 분석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세척과 탈염 및 강화, 이물질제거 - 각 유물의 상태에 따라 보존처리 순서가 달라진다. 세척보다 이물질 제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고 탈염과 강화는 생략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세척시 증류수 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얼룩이나 표면 오염물 정도밖에 안되므로 약품이나 고온스팀세척 등으로 빙렬과 크랙내부에 침투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바다 속에서 출토된 유물은 탈염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표면에는 대부분 패각류가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그림2). 탈염처리과정은 <염류의 재분해→ 용해염류추출→ 염류추출 후 처리> 순서로 행해진다. 우선 고온 환경 속에 유물을 넣고 축축한 종이 타월로 감싸서 결정화된 염류를 재용해가 용이한 상태로 만든 후 이들을 항온수조 증류수에 침적시켜 염류를 추출하는데 여러 번 증류수를 교체시키면 염소이온 농도가 낮아진다. 만일 도자기의 염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태토와 유약층이 박락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3. 접합 - 발굴현장 등에서 임시적으로 접합되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합된 도자기는 해체작업이 선행되는데 이때 기존 접착제의 종류를 파악하여 이를 녹일 수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합단면이 정리된 도자기를 재접합할 때는 점도가 낮은 접착제가 유용하며 접합선이 불확실한 경우 편과 편 사이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므로 각 대상 유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4.5. 청자음각연화문표형주자의 복원 전, 후
 결실된 손잡이를 에폭시퍼티와 소성점토(Repair it Quick :
 8 + Original sculpey :2)를 혼합하여 세 줄의 긴 가닥을 만들어 실제
 도자기를 성형할 때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형태를 복원시켰다.



그림6. 복원과 복제를 위한 틀 제작
 입성형을 위한 틀은 한 조각형 틀(One-part Mould)와
 분할형 틀(Multi-part Mould)가 있다.



그림7.8. 분청사기조화초화문접시 색맞춤 전, 후
 결손부의 형태를 복원한 후 조각도로 문양의 홈을 파고 태토색,
 분장토색, 유약색을 각각의 위치와 순서를 정하여 칠한다.

접착제의 종류		접 합 성
질산셀룰로즈	HPC	-채색층이 연화되어 박락된 전(傳)류 등 -저화도로 소성된 당삼채나 연유계통의 자기류
아크릴수지	파랄로이드 B-72	-기형이 큰 빗살무늬 토기류 -태토안에 기공이 많아 잘 부서지는 토기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순간접착제	-수비가 잘되어 태토가 잘 정선된 도자기류 -깨진 단면이 비교적 정확한 도자기류
에폭시수지	데브콘, 아랄다이트 AY103+HY956, 에폭시퍼티 퀴우드, 리페어러, 에포테크301	-태토가 잘 정선된 도자기류 -깨진 부분이 비교적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

표1. 접착제의 적합성

4. 복원 - 복원은 일반적으로 없어진 부분을 새로이 만들어 파손 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데 국부적인 결손부위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파손도 복원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여러 편으로 존재하던 도자기를 완형으로 복원하여 공예품의 미감까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한다. 예전에 복원기술이 미흡하였을 때는 도자기가 환경에 비교적 느린 속도로 손상된다는 이유로 완벽한 처리보다는 형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최선이라 여겼지만 현재는 도자기의 형태, 색감, 문양 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복원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5. 색맞춤 - 도자기 표면은 워낙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갖고 있으므로 색채 계획은 복원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자기를 볼 때 느껴지는 강도 및 기공율과 같은 특성을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복원재료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래야 색맞춤 단계에서 색감뿐만 아니라 질감까지도 최고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채색할 때는 기본이 되는 색을 먼저 열게 칠하고 그 밖에 특징있는 색들을 하나씩 올려주어 농도를 짙게 하는 것이 편리하며 아크릴물감이나 각종 안료를 사용한 감산혼합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의 혼합비율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색깔차이를 예민하게 느껴서 혼합비율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2와 같은 연습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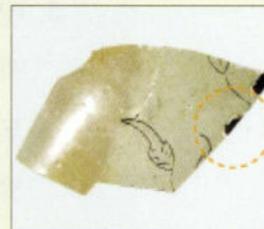
혼합색명 Name of the mixed color	혼합 전·후 Before or after the mixing	
1. 프탈로 블루 + 알리자린 크림슨 + 티타늄 화이트 + 카드뮴 옐로우 Phtalo blau + Alizarin crimson + Titanium white + Cadmium yellow		
2. 울트라 마린 + 카드뮴 옐로우 + 티타늄 화이트 Ultra marine + Cadmium yellow + Titanium white		
3. 울트라 마린 + 카드뮴 옐로우 딥 Ultra marine + Cadmium yellow dip		
4. 셀루리안 블루 + 옐로우 라이트 한사 Cellurian blue + yellow light hansa		
5. 샵그린 + 아이보리 블랙 Shop green + Ivory black		
6. 비리디안 + 알리자린 크림슨 Viridian + Alizarin crimson		
7. 프탈로 그린 + 티타늄 화이트 + 알리자린 크림슨 + 옐로우 옥사이드 Phtalo green + Titanium white + Alizarin crimson + Yellow oxide		
8. 프탈로 그린 + 카드뮴 옐로우 + 카드뮴 레드 Phtalo green + Cadmium yellow + Cadmium red		
9. 프탈로 그린 + 페이너스 그레이 + 카드뮴 옐로우 + 티타늄 화이트 Phtalo green + Payne's grey + Cadmium yellow + Titanium white		
10. 페이너스 그레이 + 카드뮴 옐로우 Payne's grey + Cadmium yellow		

표2. 청자색에 근접하기 위한 몇 가지 혼합 방법
청자의 색맞춤을 위한 혼합은 푸른색과 노란색계열의 색을 혼합하거나, 기존의 녹색에 소량의 다른 색을 첨가해 변화를 이끈다.
이때 혼합된 녹색은 모두 다른 감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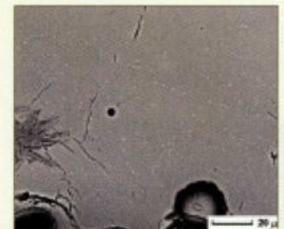
6. 유약층 복원 - 토기의 표면은 유리질이 아니다. 그러나 마연토기나 분장토(이장)로 마무리된 경우는 약간의 광택이 있을 수 있으며 경질 토기의 표면은 시유된 느낌과 비슷할 때가 많다.

반면 도자기의 표면은 유약의 종류에 따라 두께와 광택, 질감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광택이 난다. 그러므로 두꺼운 유면은 투명 에폭시를 사용하고 얇고 고른 광택은 글로 스바니쉬로 표현한다. 실투된 경우는 메트바니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폭시 수지를 흘려 이라보 유약 느낌을 주며, 균열을 일일이 그려주어 균열유를 표현한다.

7. 연구 및 분석 - 도자기의 태토, 문양, 제작기법, 재질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고·미술사적인 해석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도자기의 유약과 안료의 성분분석 결과를 장기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유물의 특징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으며, 현미경관찰·주사전자현미경 관찰·X선 회절분석·미세구조분석 등을 통하여 세부문양, 시문방법, 제작방법, 내부구조, 번조온도 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도자기의 가시적인 특징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법천사지 출토 청자상감동체 편



반전자상으로 관찰한 동화 장식부분의 미세구조

그림9. 동화안료의 과학적 분석

과거에는 위와 같은 붉은 색 안료를 진사라고 불렀으나 최근의 연구결과 이것이 광물안료가 아닌 구리성분으로 밝혀져 현재는 동화라고 명명하고 있다.

학술상 수상논문

심사평

본 책은 토기·자기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자료집으로서 논문의 형식이 아니라,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한 圖錄의 형식을 하고 있다. 형식과 내용은 보존과학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토기·자기의 보존처리와 복원에 관해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와 처리방법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변화상황도 정리하여 자료적인 가치도 높다하겠다. 하지만 내용이 깊이가 부족하고 이론적 체계는 약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을 위한 도록은 문장의 형식과 용어사용의 정확성 등 정확해야할 요소가 많은데 이 점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위원 안병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아니 동양에서 최초로 발간된 것이다. 토기와 자기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 처리에 따른 입문 및 기술서로서 손색이 없는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우수하고 보존 과학 전공자는 물론 일반인의 이르기까지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이해와 보존 과학적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좋은 지침서로 기대된다. 단 참고 및 인용 문헌의 소개와 언급이 다소 미숙하고 사용 방법과 약품에 대한 적절한 참고문헌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심사위원 강대일

2009년도 33기 박물관 특설강좌

≡ 2009년도 33기 박물관 특설강좌

1977년부터 일반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및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고자 개설된 박물관 특설강좌(일명: 박물관대학)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안내

> 모집대상

대학원 수준의 강의 수강가능하며 25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전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

> 모집인원

화요일 : 200명

목요일 : 200명

> 강좌내용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학,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교육 및 고적답사

> 수강기간 및 시간

2009년 3월 ~ 12월(매주 1회, 13:00 ~ 17:00)

> 교육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 참고사항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9년 1월 8일(목)부터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청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교육회비 : 400,000원(온라인 입금, 교재대 포함)
- 신청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ume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설강좌 강의장면

전시실교육

고적답사

≡ 2009년도 33기 박물관 특설강좌 시간표(안)

1 학 기		
월	1~2교시 (13:00~14:50)	3~4교시 (15:00~16:50)
3	개강안내 한국사의 흐름 삼국사기	올바른 역사관 한국사의 흐름 삼국유사
4	인류와 문화 형질 인류학 고고학 개론 신석기 문화 낙랑 문화	인류와 문화 비교문화론 구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전시실 교육
5	철기 문화 백제 문화 가야 문화 몽골 문화	고구려 문화 신라 문화 발해 문화 일본 고대문화
6	중국 고대문화 중국 도자 분청 사기 중국 회화	한국미술의 흐름 고려 자기 조선 백자 전시실 교육
7	조선 회화 한국 풍속화	조선 회화 한국 불화

2 학 기		
월	1~2교시 (13:00~14:50)	3~4교시 (15:00~16:50)
8	중앙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 문화
9	인도 불교조각 한국 불교조각 석조 미술 한국 목공예	중국 불교조각 불교 금속공예 석조 미술 전시실 교육
10	한국 고건축 한국 와전 한국 고지도 한국 금석문	한국 고건축 한국 조경 한국 고인쇄 한국 서예
11	한 글 종교와 사회 불교 사상 세계의 박물관	특 강 유교 사상 도교 사상 보존 과학
12	한국 과학사 수료식	한국 음악

고 적 답 사

- 4월 충남 공주지역
- 5월 충남 부여지역
- 6월 충남 서산지역
- 9월 충북 청주지역
- 10월 인천 강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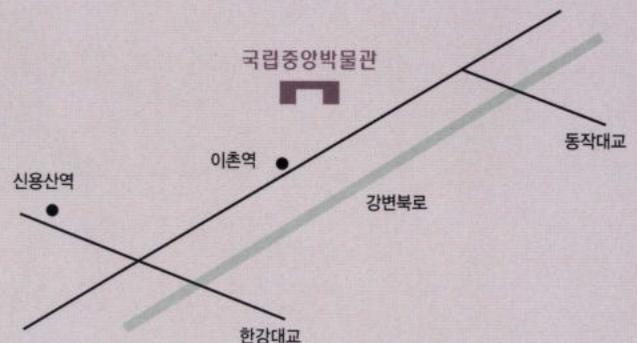
• 시간표 및 답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연구강좌

박물관 연구강좌는 1981년부터 특설강좌 수료생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20여개의 스터디 그룹으로 활동하던 것을 1997년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연구강좌는 박물관 특설강좌를 수료하신 분에 한해 참여가능하며 2009년에는 9개 반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강좌반	주 제	시 간	장 소
고고인류	인류문명발달사	첫째·셋째 화요일 오전 10:00~12:00	제 1강의실
한국사A	조선후기사	첫째·셋째 목요일 오전 10:00~12:00	소강당
동양문화	중국문화사	첫째·셋째 금요일 오전 10:00~12:00	소강당
세계문화A	일본문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 14:00~16:00	소강당
한국사B	조선생활사	둘째·넷째 화요일 오전 10:00~12:00	제 1강의실
세계문화B	이집트문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14:00~16:00	제 1강의실
사상사	동양의 미학사상	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00~12:00	소강당
불교미술	동양불교건축	둘째·넷째 금요일 오전 10:00~12:00	소강당
미술사	조선화가열전	둘째·넷째 금요일 오후 14:00~16:00	소강당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이천역
2번 출구로 나오신 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눈 속에 나란히 선 두 기의 탑이 정답다.
경북 금릉 금오산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다.
통일신라시대 양식으로 2단의 기단부와 3층의 탑신부로 되어 있다.
화려한 꾸밈은 없으나 단순하고 강직하다.
박물관 앞뜰 석조물 정원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사회교육·자원봉사·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 吳志哲

理 事 | 崔光植 朴仙卿 朴亨植 申硯均

安聖基 李健茂 李斗植 李仁洙

田永采 鄭明勳 池健吉 崔科南

監 事 | 金義炯 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한다.

■천마회원

千 信 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하나금융지주 金宗烈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尹碩敏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은관회원

柳昌宗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중합전기 대표

■청자회원

徐載亮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瓚 김&장법률사무소
玄明官 전 삼성물산 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사장
南秀淨 (주)선엠프드 대표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변호사
胡鍾一 호성홍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明姬 열화당 대표
李起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茂茂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성곡미술관 이사
朴載蓮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都炯泰
申聖秀
한국도로공사
李宇鉉
玄智皓
金芝延
權俊一·具在善
金南延
최철원
洪政旭
許榕秀

서양화가
갤러리 현대 대표
고려산업(주) 회장
柳徹浩
동양제철화학 대표
(주)화승 부회장
컨셉마이동훈 대표
칼라일 코리아 대표
동훈디앤아이 대표
M&M(주) 사장
국회의원
GS홀딩스 상무

■백자회원

李京姬 수필가
洪錫肇 변호사
李興杓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대학 강사
崔科南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문화재청장
韓載京 코한 인터내셔널
柳憲辰 (주)크린텍 회장
高錫銘
李股子
鄭琺熹
崔惠玉
李芝衡
金京姬
金信韓
韓惠舟
李教祥
李胤基
朴榮圭
柳英芝
俞承熹
(주)서울옥션

책을 만들면서..

가지에 남은
마지막 잎들
북서풍이 반가워 지는 것은
낙엽 속으로 가고 싶어서일까? (水)

잎이 지자 산지락의 골이 다 드러났다
굽어서 더 풍성한 주름들
이제 색을 잊고 대신 주름으로 말한다(진)

필자의 원문과
책의 취지 사이에서
편집자는 늘 갈등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많이 떨리고 조심스럽다.
부득이 심지 못한 글 양해바랍니다.(河)

첫눈이 내렸단다.
enje! 글썩 ...
겨울호 편집을 마쳤다.
또 나의 한해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愛)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생각하라고...
일년도 이렇게 빠르네...
갑자기 10년의 무게가 짓누른다.(리)

이제 막 겨울인데
나는 벌써 봄을 기다린다.(정)

하얀 눈 덕분인가
세상의 다채로운 빛깔이 더욱 곱다.(瑚璉)

발행일 2008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유창중

기획 신병찬

편집위원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강신애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mumes.org

**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회 |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